

# '이우환 위작' 유통책 혐의 부인

## "위조·유통 전혀 관여 안 해"



한국 현대 미술의 거장 이우환(80·사진) 작가의 작품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화가와 위작(偽作) 유통책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작품을 위조했다"는 화가 측과 "위조를 제안한 바 없다"는 유통책 측의 법정 진술이 서로 엇갈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9일 위작 총책으로 지목된 현모(66)씨와 유통책인 팔동품 판매상 이모

### 위작 화가 "위조 인정"… 유통책 "위조 제안한 바 없다"

(67)씨, 또 다른 위작 화가 이모(39)씨의 사서명 위조 등 혐의 재판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이 작가 작품을 위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직접적으로 작품 판매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유통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 공범으로서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통책 이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작가가 그림의 위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의 공소사실에는 유통책 이씨가 현씨에게 위조를 제안, 그림 도구를 마련해주거나 유통 단계에서도 관여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씨와 거래한 바 있던 하나 이 사건과 무관한 고미술품을 거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위작 화가 이씨 측 변호인은 증거목록 등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다음 열리는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9일 오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측의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제출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 작가 측 변호인들도

참석했다. 이 작가 측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재판을 지켜보고자 한다"며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게 직권 감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이 작가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4점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작가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통책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현씨에게 "이 작가의 위작을 만들어주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조 작품들을 이 작가의 그림이라고 속여 작품 한 점에 2억1750만원에 파는 등 총 15억425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김민근 기자

## 이거 풀 수 있어?

### '엄청나게... 재밌는 문제들'

대학 입학시험의 목표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최고의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대학 교수들이 지원자의 독창적 사고력을 시험하는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데, 지원자가 배운 것을 새롭게 도전적인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종 독특한 문제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책은 옥스퍼드대학의 교수로서 수많은 입학 시험의 문제를 출제하고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토마스 포비가 자신의 전공인 물리학과 수학 분야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들 중 예비 대학생 수준에 맞는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호기심과 재미를 북돋우려고 만들어진 문제와 대학 입학시험에서 사용되는 표준적인 문제들이 고루 섞여 있다. 보기에는 만만치 않지만, 포비는 고등학교에서 기초를 튼튼히 닦은 학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입학시험 문제를 내 방에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을 읽는 데는 순서가 없다. 틈나는 대로 아무 쪽이나 펼쳐 봐도 좋고, 시간을 정해 두고 집중적으로 탐구해도 좋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를 찾는 데 실패해 문제 풀이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문제의 상대적 난이도를 표시한 별의 개수는 참고하는 게 좋다. /김민근 기자

### 도문화관광재단, 품다락 토요문화학교 선정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병천)은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는 <2016 품다락 토요 문화학교 하반기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프로그램 질적 담보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단체들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신규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상반기 10주 가량 운영했다. 이 과정에는 도내 23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이중 심사를 통해 8개의 잠재력 있는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총 9억원이다. 재단은 상반기 공모사업에는 8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39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기획사업의 일환인 상반기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 단체에는 1천만원씩 총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8개 단체와 프로그램은 고흥장동농어보존회<고창·이아기 로 가는 자전거 여행>, 그리고 만들다<임실·그 길 위엔 무엇이 있을까?>,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군산·특명! 보자기 마을을 구하라!>, 문화예술북<김제·우당탕탕 인성 구조대>, 시암문화예술협동조합<정읍·내장산 생태공원 캔버스>, 여울림<전주·화면조정>, 울림<순창·꿈틀>, 이랑고랑<전주·나의 꿈, 나의 집> 등이다.

이들 단체는 오는 9월부터 10주~15주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참여를 원할 경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3-230-7441. /정해은 기자

## 삶의 고뇌를 꽃의 형상으로 담아내다

### 정은하 'color in My Life' 전



정은하 작가는 인간의 본질 및 삶의 고뇌를 꽃의 형상으로 투사하여 화폭에 담는다.

그리하여 폭풍우가 불어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신산한 삶의 여정, 마음속에서 차마 꺼내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희망·꿈·열정 등이 작품 속 꽃들로 피어났다.

'color in My Life' 전이 10~15일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강렬한 색감들이 중첩된 채색은 보는 이들에게 삶의 생기가 가득한 생동의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꽃의 형상은 자연 그대로의 단순하고 소박한 터치와 색감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꽃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 보다는 꽃에서 감도는 꽃의 기운에 주목한다.

꽃의 기운에는 계절이 바뀌는 시간의 의미, 꽃이 피는 자연의 이치,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없는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 등이 내포되어 있다.

작가는 "삶의 회로애락에 대한 모

든 감정을 한바탕 춤을 추듯 쏟아내는 작품을 통해, 다양한 삶의 의미를 담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하는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작가는 2016 월간미술세계 창간 32주년 대한민국 꽃 특별전(서울 갤러리미술세계), 한국여성미술 역사를 돌아보다(한가람미술관), Refomation 행복을 나누다(서울시립미술관), 샌버나디노의 비람에 날다(한가람미술관), 행복을 담다(서울, 아메리카 미술로 들여보기전(한가람미술관), 그랜드일 버드고갤러리(미국), 서울의 소리전(북경 한국문화원갤러리)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정읍시립미술관 기획 전시회 개막

### '응답하라 전북미술 7080...feeling의 색으로' 내달 9일까지

정읍시립미술관 기획 전시회로 마련된 '응답하라 전북미술 7080...feeling의 색으로'가 9일 개막식과 함께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당일 오후 2시 시립미술관 교육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생기시장과 유진섭 시장의회의장, 전북도·정읍시의회 시의원과 장명수(전)전주대학교 총장, 황병근 상공관 관장, 김남근(전)전북일보사장, 소재호(전)전라북도문인회장, 신기현 전라북도예총회장, 심재기 전주시 예총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과 전시회 참여 작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생기 시장은 식사를 통해 "정읍시립미술관 기획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읍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만큼 학생과 가족들이 전시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면서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관 이후 세 번째 기획전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70~80년대 전북지역에서 활발하게 창작의 꿈을 열정을 불태웠던 16명의 작가들을 우수작품 43점을 감상할 수 있다. 참여작가는 권병렬, 김두해, 김문철, 김정숙, 김철수, 류창희, 박민영, 박종수, 신기현, 소기호, 송만규, 양만호, 오우석, 우상기, 이창규, 장지성 작가이다.

작품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회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립미술관(063 539-6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10일>

<p><b>▷쥐띠</b> 46년생: 속에 있는 생각이 타인에게 우회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운이다. 60년생: 작은 일에도 과민반응 할 수 있다. 72년생: 자신을 낮추면 복이 된다. 84년생: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중해야 할 때이다.</p>	<p><b>▷소띠</b> 49년생: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야. 73년생: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운. 62년생: 이력사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하는 운.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긍정적으로 진행하라. 86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p>	<p><b>▷토끼띠</b> 51년생: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결과적으로는 좋다. 75년생: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운. 87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p>
<p><b>▷용띠</b> 52년생: 아랫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다. 64년생: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는 주변상황을 악화시키니 동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76년생: 투기는 금물이다. 금전을 주고받는 일도 좋지 않다. 88년생: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약을 당할 수 있는 운이니 미리 방지하라.</p>	<p><b>▷뱀띠</b> 53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운. 65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유의하라. 77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운. 89년생: 정신이 뚜렷하고 맑지 않으니 실수를 하거나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b>▷말띠</b> 5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 마찰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매사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고자 하는 일의 70%에 만족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78년생: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양보하는 듯 실천해야. 90년생: 먼저 배려한 후에 이득이 있는 운이니 선심 쓰는 것이 이롭다.</p>	<p><b>▷양띠</b> 55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다. 67년생: 문서에 결심이 있으니 서류나 문서를 주고받거나 계약을 하러거든 미루지 마라. 79년생: 타인이 시비를 걸어오 대립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91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능력만큼의 일만 처리하라.</p>
<p><b>▷원숭이띠</b> 56년생: 건강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운이다. 68년생: 자신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게 처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80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생기는 운. 92년생: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노력하고 열심히 임하는 것이 좋다.</p>	<p><b>▷닭띠</b> 57년생: 천운이 있으니 매사가 순리대로 잘 흘러간다. 69년생: 혼자 행동하지 말고 상의하고 결정하면 좋다. 81년생: 기존의 방식에서 전환점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93년생: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좋은 변화가 도래하니 긍정적으로 말하라.</p>	<p><b>▷개띠</b> 46년생: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58년생: 허황된 일만 아니라면 작은 성과는 따르는 운이다. 70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하라.</p>	<p><b>▷돼지띠</b> 47년생: 진실은 통하는 법이다. 59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1년생: 상대를 일찌감치 보지 마라. 83년생: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매사에 꼼꼼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p>